

# 정착목적 청소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모바일 학습 어휘 콘텐츠 구축 연구

심형철\*, 심혜령\*\*

요약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오늘날 교육의 패러다임은 이러닝(e-learning)에서 모바일 학습(m-learning)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언어교육에서도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교수 학습 전략과 콘텐츠 개발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한국어 교육용 모바일 콘텐츠 구축을 위한 선행 과제로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한국어교육 방향 설정과 적절한 대상 선정, 그 대상에 맞는 교육 내용 설정, 교육 콘텐츠 구축을 위한 적절한 자료 선정과 분석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그에 따라 정착목적 청소년 학습자의 외래어 어휘 교육에 대해 논한다.

## Study on building up m-learning vocabulary contents for teenage Korean language learners who aim to settle down in Korea

Hyeong-Cheol Shim\*, Hye-Ryeong Shim\*\*

ABSTR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mobile technology, current paradigm of education is gradually shifting to m-learning from e-learning. Following this change, the necessity of adequate education strategy and contents development for m-learning in Language education is becoming evident. So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for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mobile content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searching for appropriate ways and targets in the mobile environ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ettling the educational contents based on the targets, selecting and analyzing adequate materials for building up the educational contents. And based on the previous discussion, this paper discusses loan word education for the teenage Korean language learners who aim to settle down in Korea.

Key Words : m-learning, Mobile Environment, teenage Korean language learners who aim to settle down in Korea, loan word, educational contents

---

\* 신라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hcsly@silla.ac.kr)

\*\* 배재대학교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과

· 제1저자(First Author) : 심형철 · 교신저자(Correspondent Author) : 심혜령  
· 접수일(2011년 10월 27일), 수정일(1차 : 2011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2011년 11월 28일)

## I. 서론

모바일 기술이 제공하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이동성, 접근성, 확장성은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인터넷에 접속, 다양한 형태(텍스트, 영상, 음성 등)의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어 교육에서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스마트폰 대량 보급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교수·학습 매체로서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한 교수·학습 전략과 콘텐츠 개발 연구가 필요하며,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정보의 제공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모바일 콘텐츠 구축을 위한 선행 과제로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언어 교육 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상 설정, 그 대상에 최적화된 내용 설정, 그리고 적절한 자료를 토대로 한 실질적 교육용 콘텐츠 구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I. 본론

### 2.1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언어교육 방향

모바일 기술의 일반적 특징점인 이동성, 접근성, 확장성, 신속성 외에 모바일 기술은 자기주도적 학습 공간으로서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최은주(2006)에서는 모바일 기술에 대해 첫째, 동기적 온라인 통신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자발적인 사고와 행동을 다루기에 적합하고 실시간 접촉과 관심 분야로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며 다양한 상호작용도 가능하게 하며 둘째, 학습 참여의 시·공간적 제약이 없으므로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시간과 환경에서 학습이 가능하며, 다양한 자료제시가 가능하여 수준에 맞는 자료 선택과 학습 진행을 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자기주도적 학습 공간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일정 프로그램의

연속적 진행 방식의 언어교육보다는 자모교육이나 특정 어휘 부류 교육 등, 특정 콘텐츠 확보와 학습자의 언어 학습의 목적, 학습자 성향, 가변적인 학습 환경에 적합한 제공이, 모바일 특성에 가장 부합되는 언어교육의 방향이 될 것이다.

### 2.2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학습 대상

중도입국자녀와 새터민자녀 즉 정착목적 청소년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일상생활의 영위와 더불어 각 급의 학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집합 교육이나 일정한 한 방향의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제공이 어렵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단기간의 집합 교육에서의 일정 프로그램을 통한 공통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학업을 위한 효율적인 어휘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다른 요구와 수준을 가진 정착목적 청소년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학업 수준별, 필요 어휘부류별 콘텐츠의 구축을 통한 모바일 학습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게다가 그들이 모바일 환경에 가장 적응이 잘 되어 있고 모바일 기기 활용도도 높은 대상이라는 점도 모바일 학습의 최적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정착목적 청소년 한국어 학습자의 현황을 보면 위의 논의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수가 늘어감에 따라 재혼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본국의 자녀가 뒤이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수, 즉 중도입국자녀의 수 또한 늘어나고 있어 현재 약 9,000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언어적, 문화적, 환경적 문제로 인해 정규학교 입학과 적응이 쉽지 않아 국내 중도입국자녀의 재학률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민족과 인종, 문화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특수한 언어 외적 환경은 학업 완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고 동시에 사전 언어학습 기회 부족, 나이에 맞는 교과 과정 적응 및 능력 부족과 또래 집단과의 교유 단절, 사회문화 적응 기회 부족 등의 고충을 겪고 있어, 어찌

보면 그들의 재학률이 저조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의 정규 교육 과정 이수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들의 성공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해법은 성공적인 학교생활 유지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때 일상생활과 전문 지식 분야에 걸쳐서 그 중요성과 난이도가 높은 어휘 부류를 모바일을 통해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 주민이 늘어감에 따라 새터민청소년 수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정착 북한이탈자 중 20세 이하가 약 20.5%를 차지하고 있어 빠른 증가 추세이며, 이 중에서 14~20세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초·중·고 학령기 청소년의 입국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새터민청소년 중에서 38%만이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고 특수학교 재학까지 감안해도 재학률은 5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이들 역시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원활한 학교생활과 학업 성취를 돕기 위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일상생활과 학업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힘들게 하는 언어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모바일 학습의 내용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 2.3 정착목적 청소년 학습자에 적합한 모바일 학습 내용 설정

한국에서의 생존과 정착, 학업 수행을 위해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정착목적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서 보통의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언어교육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지식이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휘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언어교육과 지식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

는 방향으로의 효율적인 어휘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어 어휘 중 특정 어휘 부류들은 그 자체의 문화적인 요소와 전문지식적 요소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학습자가 내재화하기 힘들어서 그 어휘들에 대한 이해의 결핍이, 학습자의 한국 사회 정착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 중에서 특히 외래어는 많은 부분에서 각급 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전문용어와 겹치는데, 이는 외래어가 원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지칭하는 사물이나 문화, 지식의 유입과 함께 들어와 한국어 언어, 사회, 문화에 적절하게 변형되어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착목적의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적응하기 어려워하고 그래서 정착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어휘 부류로 외래어를 들 수 있겠다. 즉 그들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는 체계적으로 학습하기가 불가능한 외래어에 대해 적절히 선정하고 제시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정착목적 청소년 학습자의 경우라면 일상적인 외래어뿐만 아니라 교과 과정 속에 내재하고 있는 수많은 외래어로 된 전문어에 대한 사전 지식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정착목적 청소년 학습자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외래어의 선별 및 어휘의 성격에 맞는 의미 전달 방안의 정립과 소개는 그들의 일상생활 정착을 돕는 동시에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게 하고 나아가 학업에 필요한 지식적 요소도 학습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 2.4 정착목적 청소년 학습자를 위한 모바일 학습 콘텐츠 구축을 위한 외래어 분석과 선정

한국사회 정착이 목적인 학습자를 위해서 외래어를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문화적 기반과 경험을 공유한 어휘로서, 한국 사회에서 유창하고 적절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는 외래어를 들 수 있다. 이들 외래어는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쓰고 있는 어휘를 사용해 구성된 초등

학교 교과서를 분석하여 선정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이들 외래어는 전문어로서 사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을 것인데 굳이 구분을 할 필요 없이 모두 유용하다 할 수 있다. 국민 교육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교과 내 어휘라면 그것이 비록 전문용어라 할지라도 적절한 한국어 구사를 위해 필요한 기본 어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형철·심혜령(2010)과 심혜령(2010)에서는 초등학교(중국의 경우 소학교) 교과서 어휘를 분석하여 어휘별로 분류한 뒤 한국어 또는 중국어 학습자의 다양한 목적 실현을 돕는 문화기반어휘와 지식기반어휘에 대해 논하고 그 의의와 제시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중 외래어와 관련된 부분은 정착목적 청소년 학습자들의 어휘 교육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1.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의 외래어  
Fig 1. loan words from elementary school first grade textbooks

| 외래어       | 용례                      | 교과 | 기본어휘선정여부 |
|-----------|-------------------------|----|----------|
| 꿀         | 꿀을 많이 넣어서 세계적으로 유명..... | 듣말 | 외        |
| 드라이버      |                         | 술  | ×        |
| 레몬        |                         | 술  | 외        |
| 로봇        |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로봇이야.    | 듣말 | 외        |
| 리본        | 색종이로 리본을 만들어어요.         | 듣말 | ×        |
| 마라카스      | 간이 마라카스를 만들어요.          | 즐  | ×        |
| <b>중략</b> |                         |    |          |
| 프로펠러      | 프로펠러 바람개비를 만들어 보세요.     | 즐  | ×        |
| 피아니스트     | 저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 쓰  | ×        |
| 햄         | 내가 좋아하는 햄이 들어갔네.        | 쓰  | ×        |
| 홀라후프      | 홀라후프를 돌려 보세요.           | 즐  | ×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이나 배주채(2010)에서 기본 어휘로 다루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로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면 ‘외’, ‘배주채(2010)’의 목록에 올라있으면 ‘배’, 두 자료 모두 언급하였다면 ‘외,배’로 표시한다. 두 자료에서 모두 언급되고 있지 않다면 ×로 표시한다.)

위의 표를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알고 있고, 알아야 하는 많은 외래어가 한국어교육용 기본어휘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외래어를 제외한 중·고교 교과서 내의 외래어는 전문어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많고 그런 만큼 지식기반어휘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므로 정착목적 청소년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의미가 크다.

이들 외래어에 대해서는 간단한 의미 설명이나 학습자 모국어로의 번역 정도의 내용이 함께 제시될 때 단순 의사소통의 차원을 넘어서는 각 학습자의 정착목적에 부합되는 어휘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학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학습 효과 고취에 실제적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고교 교과서에서의 외래어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의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교과서를 분석할 때, 외래어와 고유어, 외래어와 한자어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어휘의 경우는 외래어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인명, 지명 등과 같은 고유명사도 지식기반어휘로서의 가치를 가진 외래어로 보았다. 전문용어 이면서 동시에 일상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의 경우와 전문용어로서 사용되는 외래어를 분류하여 정착 목적 한국어학습자의 필요성에 맞는 외래어 목록 구성에 융통성 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과학 교과서의 전문용어 속 일상용어는 한자어가 많았으며 외래어는 ‘에탄올, 나프탈렌’ 등 실험에서 사용하는 재료와 관련된 어휘가 많았다. 이렇듯 일상생

활에서도 사용하는 전문용어도 많긴 하지만 지식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전문용어의 수가 훨씬 많아서 일반 한국 학생들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된다. 즉 이러한 외래어의 경우는 일반 학생들과 정착목적의 청소년 학습자나 그 출발이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들도 많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이 아닌 그 위 학년부터 수업에 받게 된 학생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그런 점에서 이러한 전문용어의 목록 정리와 적절한 제시는 정착 목적의 청소년 학습자들의 학업 이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중·고교 과학 교과서에서의 외래어  
Fig 2. loan words from junior high & highschool science textbooks

|              |  |
|--------------|--|
| 전문용어         | 오로라 / 맨틀 / 프리즘 / 마그네슘 / 나트륨 / 칼륨 / 스포이트 / 스테아르산 / 삼각 플라스크 / 염화코발트종이<br>하략                      |
| 전문용어이면서 일상용어 | 오존층 / 알칼리 / 이온 / 렌즈 / 알루미늄 / 피스톤 / 익스팬더 / 그래프 / 매머드 / 아세톤 / 아스피린 / 아크릴<br>하략                   |
| 일상 외래어       | 컴퓨터 / 로봇 / 에어컨 / 텔레비전 / 인터넷 / 사이트 / 가스레인지 / 피아노 / 라디오 / 테이프 / 가스 / 퍼즐 / 샴푸 / 오렌지주스 / 이어폰<br>하략 |

기술·가정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여타과목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문용어와 일상 외래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기술·가정의 전문용어와 전문용어 속 일상용어를 학습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어휘를 확장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한다.

표 3. 중·고교 기술·가정 교과서에서의 외래어  
Fig 3. loan words from junior high & highschool technology·domestic science textbooks

|              |   |
|--------------|---|
| 전문용어         | 케이싱 / 코코스 / 크랭크 축 / 클러치 / 터보 제트 기관 / 플로트실<br>하략 |
| 전문용어이면서 일상용어 | 다운로드 / 댐 / 멀티미디어 / 밀리미터 / 바이러스 / 밸런스 / 벨브<br>하략 |
| 일상 외래어       | 빌딩 / 콘도미니엄 / 크레이프 / 텔레마케터<br>하략                 |

수학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외래어는 학습을 위해 필요한 외래어로서 그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뜻과 간단한 학습적 정보, 이전에 등장했다면 언제, 어느 학년에 등장한 것이었는지 등의 내용이 적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 예시와 풀이를 위해 등장하는 외래어의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상 외래어라 할 수 있으므로 수학 과목에서의 일상 외래어는 정착을 위한 외래어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표 4. 중·고교 수학 교과서에서의 외래어  
Fig 4. loan words from junior high & highschool mathematics textbooks

|        |   |
|--------|---|
| 전문용어   | 로그 / 루트 / 벤 다이어그램 / 사인 / 알고리즘 / 피타고라스의 정리<br>하략 |
| 일상 외래어 | 메달 / 소시지 / 키위 / 택시 / 프로펠러 / 피자 / 햄버거<br>하략      |

도덕 교과서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와 인물, 지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문용어는 각 학년마다 겹치는 어휘가 많고 일반 한국 학생들 또한 생소하게 여길 어휘가 많다.

표 5. 중·고교 도덕 교과서에서의 외래어  
Fig 5. loan words from junior high & highschool ethics textbooks

|              |  |
|--------------|--|
| 전문용어         | 길드 / 니부어 / 레닌 / 로크 / 루스벨트 / 키부츠 / 타고르 / 토인비 / 트루먼 / 프로슈머 / 프롬 / 하이데거<br>하락 |
| 전문용어이면서 일상용어 | 네티즌 / 멀티미디어 / 시너지효과 / 아카데미즘 / 유엔 / 유토피아<br>하락                              |
| 일상 외래어       | 온라인 / 요트 / 프로그램 / 프로듀서 플래카드 / 핫라인 / 햄버거 / 호텔 /<br>하락                       |

사회 교과서는 일상 외래어의 경우 ‘비닐하우스, 커피, 서비스, 홈스테이’ 등 4개가 제시되었고, 전문용어는 서양의 역사와 관련된 용어나 최근에 생겨난 용어들은 서구권 언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 외래어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타마타병, 메이지유신’과 같은 일본어도 제시되고 있다. 사회 과목 자체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전문용어와 일상용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그런 점에서 사회 교과서에 등장하는 외래어들은 지식기반어휘로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어휘로서 알아야 할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표 6. 중·고교 사회 교과서에서의 외래어  
Fig 6. loan words from junior high & high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              |  |
|--------------|--|
| 전문용어         | 플랜테이션 농업 / 팜파스 / 카스트 제도 / 칭기즈칸 / 트로이 / 메이지유신<br>하락 |
| 전문용어이면서 일상용어 | 그랜드 캐년 / 실리콘밸리 / 르네상스 / 유토피아 / 오아시스 / 마그마<br>하락    |
| 일상 외래어       | 비닐하우스 / 커피 / 서비스 / 홈스테이                            |

국사 교과서는 일상 외래어와 전문용어 속 일상용어가 다른 과목들에 비해 훨씬 그 수가 많았으며 전문용어의 경우 한자어가 1011개로 외래어에 비해 그 사

용이 훨씬 많았다. 전문용어인 외래어는 고대와 중세 시대 기술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근세와 근대를 거치면서 그 수가 늘어났는데 이는 문호개방을 통해 외국과의 교역이 늘어난 시기와 맞물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전문 용어인 외래어는 교과서에 있는 어휘에 따른 설명을 중심으로 학습하면 수월할 것이라 예상된다.

표 7. 중·고교 국사 교과서에서의 외래어  
Fig 7. loan words from junior high & high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        |  |
|--------|--|
| 전문 용어  | 과하마 / 나치즘 / 이데올로기 / 차르 / 총칭 / 하라톱스크 / 하얼빈 / 화베이 /<br>하락                      |
| 일상 외래어 | 서커스 / 수프 / 스타킹 / 스포츠 / 아이스크림 / 아파트 / 엘리트 / 올림픽 / 우동 / 인터넷 / 하이힐 / 할리우드<br>하락 |

체육 교과서의 일상 외래어는 많지 않았고, 전문용어의 경우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한자어보다 서양어권 외래어가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운동의 명칭이 대부분 서양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전통 운동이나 놀이 소개를 위해 고유어로 된 전문용어의 수가 20개로 많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연상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표 8. 중·고교 체육 교과서에서의 외래어  
Fig 8. loan words from junior high & highschool PE textbooks

|              |   |
|--------------|---|
| 전문용어         | 그랑 폴리에 / 그레코로만형 / 그립 / 녹온 / 테블로페 / 드미 폴리에 / 디베르티스망 / 엘버트로스 / 어드레스 /<br>하락 |
| 전문용어이면서 일상용어 | 그립 / 글러브 / 래프팅 / 류머티스성 관절염 / 번트 동작 / 태클 / 훅 / 러빅 / 볼링<br>하락               |
| 일상 외래어       | 러닝 머신 / 샌드백 / 알코올 / 조깅 / 캠프 파이어 / 캠핑<br>하락                                |

음악은 서양 고전음악과 관련된 어휘들은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교과서 분석 결과 전문용어는 기초 어휘를 중심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된 내용에 어휘가 확장되며, 이러한 전문용어는 일반 한국인 학생들 또한 생소한 어휘이므로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9. 중·고교 음악 교과서에서의 외래어  
Fig. 9. loan words from junior high & highschool music textbooks

|              |   |
|--------------|---|
| 전문용어         | 그리그 / 다 카포 / 아리아 형식 / 도리아 선법 / 리토르넬로 / 모듈<br>하락 |
| 전문용어이면서 일상용어 | 리코더 운지표 / 샹송 / 아리아 / 포크<br>하락                   |
| 일상 외래어       | 발레/ 아카펠라 / 아코디언 / 컴퓨터 음악<br>하락                  |

미술 교과서에서는 전문용어이면서 일상용어인 외래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이 등장하였다. 또한 미술 교과서는 중1, 중2, 중3, 고1의 교과서 내용이 유사했으며 이에 따라 거의 같은 어휘들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미술교과서에 쓰인 외래어의 경우, 정착목적 학습자에게 유용하면서도 그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10. 중·고교 미술 교과서에서의 외래어  
Fig 10. loan words from junior high & highschool art textbooks

|              |  |
|--------------|--|
| 전문용어         | 로마네스크/리소그래피/ 마커/ 메조틴트/ 모노타이프/ 콜라주/ 콩테/ 템페라 / 토르소/ 픽토그램/<br>하락    |
| 전문용어이면서 일상용어 | 모티브/ 세라믹/ 스케치/ 스테인리스/ 스텐실/ 시멘트/ 심벌/ 아크릴/애니메이션/오브제/캔버스/ 포스터<br>하락 |
| 일상 외래어       | 비너스/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캐릭터 / 피라미드/ 힌트<br>하락                           |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중고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많은 외래어가 전문용어로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중 일상에서 접할 수 없는 어휘인 경우도 많았다. 즉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외래어 전문용어가 일상용어로도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도구이고 그래서 ‘문화기반어휘’와 변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고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외래어 전문용어는 이름 그대로 ‘지식기반어휘’로서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교과 과목의 학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 2.4 정착목적 청소년 학습자를 위한 외래어 모바일 학습 활용

정착목적 청소년 학습자를 위해서는 우선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외래어’와 중고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일상 외래어’ 및 ‘일상용어이면서 전문용어인 외래어’를 하나의 범주로 묶고, 중고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전문용어인 외래어를 또 하나의 범주로 둘 필요가 있다.

전자는 정착과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한 일상적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외래어이다. 그러므로 이들 외래어가 모바일 학습 콘텐츠로 구성될 때에는 계열 관계·결합관계·의미 등에서 관련 있는 어휘 정보, 빈도 높은 사용 용례·상황·장면, 구체적인 뜻과 유래담 등이 중요한 정보로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일상생활에서의 원활한 소통과 특히 또래 집단과의 소통에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비규범어로 순화대상인 어휘도 그 소통의 가치가 인정되면 일상 외래어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또한 콘텐츠로 제공될 때에는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방향에 맞춰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쓰인 외래어는 실제로는 그렇게 발음되지 않아서, 만약 쓰인 대로 발음한다면 실제 통용되는 한국어와는 달라져서 의사소통에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외래어는 실제 통용시키고 있는 다양

한 발음 정보를 담아, 한국인의 실제 발음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쓰기에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래어 표기법과 함께 한국인들이 흔히 통용시키는 외래어 표기의 통용 범위 정보를 알려줄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로봇'은 표준 표기법인 '로봇' 또는 '로보트'라고 말하고 쓰지만 '로봇'이나 '로봇'이라고 하는 하지 않는다. 이렇듯 비록 규범에는 맞지 않으나 통용되는 범위에 대한 정보는 정착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한국어 언어 사회 적응을 도울 것이다.

후자는 중·고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전문용어인 외래어로서, 우선 한국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의 자가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일반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대상인 정착목적 청소년들에게 교과별·학년별 난이도, 중복도 등에 따라 정리한 교과서 등장 외래어 어휘 목록이 작성되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만 있다면 학습자는 개별 어휘의 기본적 의미와 쓰임을 미리 숙지하여 진학할 수 있고, 또한 진학하여 학습 진도에 맞추어 혼자 스스로 연습·복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학습의 장점을 살리게 되면 이러한 콘텐츠의 구축과 제시만으로도 수업 중 어휘의 뜻을 몰라 학습에 방해를 받는 일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문용어로서의 외래어를 모바일 학습의 콘텐츠로 구성할 때에는, 일상의 래어와는 달리 용례나 사용 맥락보다는 어휘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뜻풀이와 관계있는 교과 및 학년, 이미 학습된 사항과 관련 정보, 그 교과에서 그 외래어와 관련되어 요구하는 학업적 지식정보 등이 필수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나라마다 교과목에서 배워야 할 교육내용이 비슷할 것이므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학생들의 모어에서의 전문용어를 같이 제시해주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심형철·심혜령(2010)에서도 전문용어의 경우 학습자 모국어에서의 쓰임과 그 대역의 제시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 III. 결론

한국사회 정착과 학업수행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정착목적 청소년 학습자들에게는 그들만을 위한 효율적인 어휘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그들의 지식기반을 탄탄하게 해줄 어휘에 대해 어휘부류 별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만 있다면 청소년 학습자들의 보충교육의 기능을 해줌으로써 그들의 성공적 학업 완수를 돕고 그리하여 건전한 한국 사회 일원으로 자라나게 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학습상황과 조건이 달라 지속적인 집합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이들의 언어교육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으며 어휘별 제공 방식과 제공 정보를 필요에 따라 달리하여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모바일 학습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최은주, 모바일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영어 어휘 학습,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2] 통일부, 정착 지원과 자료, 2005
- [3] 교육 인적 자원부,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학교 설립 추진 계획, 2004
- [4] 심형철·심혜령, "중국어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어휘력제고 방안 연구", 중국어문학지 34집, 중국어문학회, 2010
- [5] 심혜령, "한국어 학습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한 어휘력제고 방안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5집, 연세대 한국어학당, 2010
- [6] 배주채, 한국어 기초 어휘집, 한국문화사, 2010

**저자소개**



**심형철(Hyeong-Cheol Shim)**

199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  
과(문학석사)

199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  
과(문학박사)

1998년~현재 신라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교수

※ 관심분야: 언어문화 교육, 언어 문화 정보 구축



**심혜령(Hye-Ryeong shim)**

1992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2007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2008년~현재 배재대학교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과 교수

※ 관심분야: 한국어 교육, 언어 문화 정보 구축